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아소 신정권과 일본의 정치정세

마스야마 미키타카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아소 다로의 배경

“태생은 좋지만 성장편력이 나쁘다.” 이것은 9월 24일 일본의 제92대 수상으로 취임한 아소 다로의 말이다. 자신의 이력과 관련하여 아소의 계보는 정계 내에서도 단연 두드러진다. 아소의 외조부는 전후 일본의 부흥을 담당한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교조부는 메이지 시대의 원훈(元勳)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이다. 오쿠보의 차남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전 내대신(内大臣))의 장녀가 요시다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낳은 셋째 딸과 아소 다카키치(麻生太賀吉)의 사이에 장남으로 출생한 사람이 아소 다로이다. 다카키치의 조부는 규슈의 탄광왕으로 불리던 실업가 아소 다키치이며, 다키치 역시 중의원과 귀족원 양쪽에서 의원으로 있었다. 다카키치는 젊은 나이에 조부의 사업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전후에는 장인인 요시다 전수상의 측근이 되어 중의원에 세 차례 당선된 바 있다. 또한 다카키치의 세째딸 노부코(信子)는 미카사노미야 도모히토 친왕비(三笠宮寬仁 親王妃)로 황실과도 인척관계에 있다. 아소의 부인인 치카코는 스즈키 젠코 전 수상의 셋째 딸로서 스즈키 슌이치 중의원 의원은 처남이 된다.

아소 다로의 정치적 경력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인맥과는 정반대로 정치가로서 아소 다로의 길은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아소 다로는 가쿠슈인 대학(学習院大学)을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과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유학하였고, 1966년에는 가업인 아소산업(현재의 아소 시멘트)에 입사했다. 1973년에는 이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사양길로 접어든 석탄광산의 폐광에 따른 인원정리 등에도 관여했다. 또한 사장직을 맡으면서도 동시에 클레이 사격의 일본 대표선수로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한 바 있다.

아소가 기업부문으로부터 정계로 진출하는 전환점이 된 계기는 1978년 일본청년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일이었다. 그 후 1979년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처음으로 당선되었으나, 3선을 노렸던

1983년에는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소는 1986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희생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중의원에 당선되고 있다.

요시다 시게루의 최측근으로 정계에 들어와 수상이 되기도 했던 이케다 하야토가 창설한 명문파벌 코치카이(宏池会)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아소는 가토 코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주류파와 뜻이 맞지 않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때로부터 1996년 경제기획청 장관으로 첫 입각할 때까지 17년이 걸렸다. 그 후 최근 정계은퇴를 선언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중의원 의장 등과 파벌을 이탈하여 “찬밥 먹는 법이라면 내게 물으라”고 말할 정도로 몇 십 명뿐인 소파벌의 비애도 맛보았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출 출마는 네 번째 도전으로 그 동안 총재선거전에서는 당선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에 크게 뒤떨어졌었다.

아소 다로의 수상 등장 배경

지난 9월 1일 후쿠다 수상이 들인 사임을 표명함으로써 이번 총재선출과 새 수상 등장이 있게 되었지만, 후쿠다 수상은 8월초에 개각을 단행하고 임시국회에 임하리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임표명은 국내외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쿠다 수상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패로 인해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에 미달하자 사임한 아베 수상의 뒤를 이어 총재선출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테러특별조치법개정(인도양 상의 자위대 함대에 의한 연료보급을 지속 시키는 내용) 과정에서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과 원활한 교섭을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수상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 대연립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이후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여 테러특별조치법의 지속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인도양 상의 자위대 함대는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이 정부에 대한 대결태세를 강화하고, 또한 자위대 함대를 다시 인도양에 보내는 신테러특별조치법 심의도 난항을 거듭하여 이례적으로 국회가 해를 넘겨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참의원에서 신테러특별조치법이 부결되었고, 이후 중의원이 2/3의 다수로 재가결해서 헌법규정에 따라 동 법안이 성립되었다. 이 이후에도 민주당은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를 목표로 공세를 강화하여 가솔린세 잠정세율 등의 조세특별조치법을 3월말로 기한만료가 되도록 몰아붙였고, 그것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하는 혼란이 국회에서는 계속되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전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수상에 대한 문책결의가 가결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후쿠다 수상은 도야코 정상회담과 개각으로 국민의 지지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내각지지율은 악화될지언정 개선되는 일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신(人身)을 새로이 하려는 것이 후쿠다 수상의 목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의 총재선출에는 아소 외에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대신 등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후보자에 의한 전국유세가 미디어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오자와 이치로가 무투표로 재선된 민주당과 대비되었다. 그러나 정당지지율 측면에서 자민당 지지도가 회복되었고, 자민당의 총재선출로 기세를 더하여 중의원 선거를 유리한 국면에서 치르겠다는 의도는 어느 정도 맞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소 다로 내각과 그 미래

지난 24일에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는 후쿠다 내각이 총사퇴하였고 이어서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수상지명 선거가 열려서 중의원에서는 아소가 지명되었으며, 참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투표에 의해 오자와가 지명되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수상지명이 달랐기 때문에 헌법의 규정에 의해 양원협의회가 열렸지만, 성안(成案)에는 이르지 못하여 결국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결이 되어 아소 다로가 제92대 수상에 지명되었고, 이어서 천황에 의해 임명되었다.

아소는 당일에 내각을 구성했고, 원래대로라면 관방장관이 낭독하는 각료 명부를 아소 자신이 직접 공표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함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어필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신내각에는 총재선출에서 싸운 요사노 가오루 재정경제상 외에 고령자 의료제도를 담당하는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노동상을 제임명하는 것과 동시에, 재무상에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임명하는 등 정책적으로 서로 통할 수 있는 의원을 각료에 등용하는 한편, 34세의 오부치 유코를 소자화(少子化: 저출산)담당상으로 임각시키는 등 화제 만들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아소 내각은 아소의 색채를 낸 포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총선거를 의식한 내각구성으로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아소는 경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하면서 재정재건파(財政再建派)인 요사노를 제임시키는 등, 후쿠다 수상의 밑에서 준비된 추경예산(補正予算)의 성립을 우선순위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테러특별조치법의 지속도 임박한 문제이다.

아무튼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아소정권의 행방은 어떻게 야당과 교섭을 진척시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국민여론의 동향과 국회의 심의여부에 따라서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 번역: 미래전략연구원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